

스마트팜 도입후 농가소득증대

농진청, 전국 우수 스마트팜 시설원에 90농가 대상 조사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을 도입한 시설원에 농가들이 수량과 품질이 높아져 농가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토마토, 딸기 참외를 재배하는 전국 스마트팜 농가 중 우수한 90농가(각 품목별 30농가)를 대상으로 조수입, 단수, 경영비, 소득 등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팜이 편리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수 농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정 생육관리 기술을 다른 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품목별 경영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토마토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일반 농가 대비 3.3㎡당 수량이 94kg으로 일반농가 65kg에 비해 44.6% 많았으며, 소득도 10a당 1,538만3,000원으로 일반농가 1,279만원보다 20.3% 높게 나타났다.

딸기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팜

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특품 생산 비율이 높아져 품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판매가격이 kg당 2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은 도입 전 1,183만 8,000원에서 1,438만6,000원으로 21.5% 늘었다. 딸기는 봄철(3월~5월) 외부기온 상승으로 과육이 쉽게 물러져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의 경우 근관부(뿌리주변 부분) 온도와 양수분 자동제어 등 최적 생육관리로 인해 과육이 단단해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참외재배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수량은 9.6%, 소득은 15.3% 늘었다. 참외도 품질이 높아져 판매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시설 내 복합환경 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천칭이나 측량을 여닫거나, 난방을 조절하는 등 온실 내 환경

을 단편적으로 조정했지만, 스마트팜에서는 일사량 온도, 습도, CO2 농도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스마트팜 우수농가는 국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과 환경 제어 프로그램 설정·활용기술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농촌진흥청은 직제개편을 통해 11월부터 '농업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설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대상 농가를 300농가로 늘려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박정승 기획조정관은 "환경과 생육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경영성과 분석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컨설팅은 물론 최적의 생육관리 S/W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클린업 축산환경개선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농협, 축산환경 개선 행사

입실축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

전북농협은 29일 입실축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실군 신덕면 소재 축산농가(김종섭씨)에서 '클린업 축산환경개선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축협 중심으로 매월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축농가 일제 축사 청소 및 농장 환경개선 등 환경개선 실천 분위

기를 조성해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축산농가 김종섭 씨는 "축산인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인 농장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민과 공존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도 축산방제 제거 및 환경개선 노력으로 친화적인 농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드론, 농업경영체 등록·직불제 현장점검에 사용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부터 수급정책까지 활용 계획

국립농산물관리원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농지, 재배작물, 가족사육 마릿수 등의 농업관련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2015~2016년도에 농관원이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조사원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

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직불제 이행점검에 활용한다.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데 드론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에도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 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드론을 활용해 농가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정보의 정확성도 높아져서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배추 파종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재배규모와 작황정보를 파악 제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고부가가치식품 R&D 성과품평회

전북생진원 18개 과제기업과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품평회가 지난 28일 전북도와 14개 시군 18개 과제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다.

14개 시군 담당자 및 마케팅, 기업지원 분야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가 시각, 후각, 미각의 관능심사와 사업성 및 경쟁력 등 관능평가를 진행하고 기능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고부가가치평가를 통해 남원미꾸리추어탕의 '봉추어탕'의 각 지방별 레시피 개발 및 레토르트 포장, 소독식 및 변형 방지기술 개발' 과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5개의 우수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남원미꾸리추어탕 한희영 이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고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관로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에 지원해 박람회 참가 등 본격적

인 사업화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있으나 기술력,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가 공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2개 과제를 발굴해 상품개발 176개, 특허출원 및 논문발표 152건의 성과를 달성해 도내기업의 상품화 및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10개 시군 18개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해 28개의 시제품을 개발했고 지난 10월에 개최된 발표엑스포를 통해 1차적으로 개발된 시제품의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했다.

생진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북도와 12개 시군에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R&D 지원을 통해 신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건설사, 1억공사시 작년에 76만원 남겨

지난해 국내 건설기업들은 1억원 어치 공사를 하면 76만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평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669억원에서 1226억원으로 527억원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매출액 1000억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4.0원에서 7.6원으로 3.6% 늘면서 1억원 어치 공사를 하면 76만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산출됐다.

한편, 조사대상 건설기업의 전체 종사자수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 및 기타 종사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공정위, 멀티플렉스 '관람료 인상' 담합 집중 조사

CJ CGV · 롯데시네마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의 관람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2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3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시간대별,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극장 내에서 판관 등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시간을 관람 여건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가격을 각각 달리 책정하는 요금제도로, 멀티플렉스들이 올해 초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세분화해 도입한 뒤 영화 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